

한마음에는 이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마음선원의 신도가 분향소 앞에서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조문은 멈추지 않고 진행됐다.



김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만장을 쓰며 대행 스님을 회고했다.

각계 인사·불자 조문 애도

안양 한마음선원장 대행 큰스님이 원적에 드셨다. 대행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는 입적 소식을 들은 전국의 신도들과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5월 22일 오전 10시, 원적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김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대행 스님은 맑고 깨끗한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셨다”며 “스님은 평소 오고갈이 없는 도리를 늘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그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생사에 임하셨다. 우리 사부대중들도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진하자”고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22일 오후 3시에는 제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입관식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8시 경에는 안양본원 4층 법당에 재단을 국화로 장식한 공식분향소가 마련됐으며, 임시 분향소로 사용되던 3층 법당에는 대행 스님의 온화하신 생전 영상 범패 모습

이 상영돼 신도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부장 송목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총무원, 인천경기지역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한마음선원을 찾아 분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도 화환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조문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이외에는 다른 화환은 받지 않고 돌려 보내기도 했다.

비구니 승단의 큰 어른 스님 입적 소식에 후배 비구니 스님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등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를 찾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어른 스님이 조금 더 계셔야 하는데...”라고 울먹이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목 스님은 “스님의 초재가 부처님오신날 진행되는데 평소 ‘한마음으로 주인공 자리를 찾아 너 스스로 눈을 뜨라’는 말씀처럼 단순히 기쁜 부처님오신날이 아닌 자신을 성찰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남겼다.

23일 오전에는 학계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스님의 분향소를 찾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범상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전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봉림사 승가대학장 도해 스님, 경주 동국대 박물관장 청원 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혜원 스님 등이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추모했다.

분향을 하며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아낸 아태불교문화연구원장 범상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대행 스님의 현대적 교육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은 교육방식이 신선했다.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불교과학을 개발 연구하고 해외포교를 하는 등 기존 조계종단의 교육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복지계 인사들도 대거 분향소를 찾았다. 정도마을 자재병원 능행 스님, 더프라미스 공동대표 도진·종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이 스님을 추모했다. 이와 함께 정도회 지도법사 범륜 스님, 내원사 선원장 자

광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 등이 방문했다. 이밖에 최대호 안양시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평소 오고갈이 없는 가르침을 펼치신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선원 신도들은 스님의 열반소식에도 담담했다. 하지만 현실 속 깊이 다가온 스님의 큰 자리를 지을 수는 없어 보였다.

강미남 보살은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님을 잃은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대행 스님이 계시는 동안 안개일 때나 항상 스님 말씀대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동현 씨는 “대행 스님은 내게 부모님보다 같다. 그런 스님이 열반하시니 마음 아프지만 분향소에서 스님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또다른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원내 구경탐을 돌고 3층 법당에서 영상범패를 들으며 스님의 원적에 대한 슬픔을 달래기도 했다.

노덕현·이은은 기자

조사

무생법인 하옵소서

푸른빛을 더해가는 산과 들에 맑은 바람이 불어 물은 잔잔하고 구름은 한가한데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선사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이 산천을 굽어보고 계십니까?

정녕, 큰스님께서서는 밭 없는 밭로 길 없는 길을 걸어 부처도 중생도 없는 열반의 땅으로 떠나시어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창졸지간(倉卒之間)에 듣게 된 큰스님의 열반소식은 대지의 풀들이 드러눕고, 하늘을 날던 새들이 날개를 접으며, 흐르던 물줄기가 멈춰 서는 일 밖의 일이요 꿈 밖의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음의 범석에서 들리던 묘음(妙音)이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그 자애로운 법음은 이제 어디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 지 눈앞이 아득할 뿐입니다.

오늘 스님의 영전 앞에서 슬한 일들이 새록 새록 떠올라, 몸을 가눌 수 없고 마음을 다잡을 수 없어 비틀거릴 뿐입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병원 건립 불사를 위해 큰 성금을 쾌척(快擲)해 주시던 일, 한마음선원 법회에 불러 강연의 기회를 주시고 학교와 병원을 걱정해 주시던 그 자상함, 불교와 과학의 둘 아닌 도리를 깨우쳐 주시며 후학 양성이 인류의 미래임을 강조하시던 모습, 힘들고 지칠 때면 용케도 아시고 한마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세상살이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내리시던 큰스님! 그 물심양면의 따뜻한 가르침과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몹시 힘든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큰스님, 대행 큰스님! 번뇌가 없이 어떻게 보리를 이룰 수 있으며, 보리를 탐하는 마음에 어찌 번뇌가 없을 수 있느냐며 깔깔 웃으시던 그 기상(氣象)이 뼈에 사무칩니다.

수차례의 결집으로 전승되어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이라면, 큰스님께서 일생 동안 배운 법구(法句)는 한마디 한마디가 대장경의 날개가 되어 고금(古今)의 일승원음(一乘圓音)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큰스님의 그 깊은 선지와 활활발발한 기상을 문자 속의 문자로 진견하고 언어 밖의 언어로 배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다투고 반목하고 투쟁하는 세상을, 화해하고 화합하여 원용과 조화의 세상으로 바꾸는 묘약(妙藥)으로 삼겠습니다.

부디, 부디, 무생법인(無生法忍) 하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추모사

한마음 도리 밝힌 우리시대 큰 빛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큰스님!
비구니 스님들의 큰 어른이시며 사부대중의 큰 스승이신 스님께서 이렇듯 원적에 드시니 세간은 일시에 어둠에 싸이고 중생들은 큰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대중들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시며 자유인으로 깨기 있고 싱긋하게 살라고 하시던 그 사자후를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과 마음을 치유하니 걸음걸음이 모두 만행(萬行)이요, 발길 닿는 곳마다 만행화(萬行華)를 피워 내어 중생의 삶을 장엄하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안양에 한마음선원을 건립한 이래 전국에 여러 지원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포교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영탑공원 조성,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인터넷 포교는 물론 한글 뜻풀이 경전의 보급,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 포교, 현대불교 신문 창간, 한마음과학원 설립 등 최초, 최고라는 수많은 업적을 이룩하며 실천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비구니회관, 중앙승가대학교, 팔만대장경 전산화 등 스님 일생에 남긴 대작불사의 공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여전할 것입니다.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불교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계층포교와 매체포교는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대지를 사르는 거대한 들불도 그 시작은 작은 불씨인 것처럼, 한 점의 불씨로 만 가지 꽃을 피우신 대행 큰스님! 다함이 없는 보현보살의 큰 행위를 다시 펼쳐기 위해 길없는 길을 따라 밭 없는 밭로 한시 바빠 돌아 오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지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조사

광도 중생 대보살로 화현하시길

묘공당(妙空堂) 대행(大行) 큰스님!
스님의 열반은 인연으로 화합된 스님의 육신이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저 망망한 범계의 바다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달이 기울었다면 달은 자리를 바꾸었을 뿐 없어지거나 멸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혁혁한 빛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큰 슬픔은 깊은 강이 되어 흐릅니다.

이제 가고 읊에 진정 재재하셨으니 정도와 예토를 오가시며 그윽한 법음을 토해내어 저희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러러 생각건대, 스님은 갖가지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고 손수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고통에서 건네주셨습니다.

포교의 불모지에 불법을 펼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심에 그 끝없는 덕화가 하늘처럼 가없습니다.

스님의 언 가슴을 녹이는 따뜻한 법문에 사람들은 환희의약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감도 법문에 실의에 찬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스님의 넉넉한 품은 가진 사람, 못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관계없이 그대로 범법을 내리시어 한 마음의 차별 없는 참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스님께서서는 산천이 연푸른 초록으로 물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 찬란한 오월에 푸르른 산 빛을 뒤로 하고 비로정상에 올라 반열반의 하늘에 유유자적 하셨으니, 범희 선열 길이 수용하시고 범계를 두루 비치사 받고여락 광도중생의 대보살로 화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푸른 계절, 부처님오신날에 함께 화신으로 몸을 나누사 이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하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영결사

만공의 달이 되어 세상 비추소서

평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도리 가르치시고 홀연히 가신 스님 이시여!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변한 것이 없는데 이제 다시는 스님을 볼 수 없으니 잠으로 황망하고 딱딱한 이 심정을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습니다. 삶이란 본디 한 조각 끈구름처럼 이렇게 허망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바의 중생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목말라하고 있는데 스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초목은 질투하고 꽃은 만발하여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이제 어디로 가이만 스님의 불이법문을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묘공당 대행큰스님!
6,000여비구니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큰 역할을 해주셨고, 한국불교 최초의 인터넷포교,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 등 한국불교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실현해오셨습니다. 살아서 열반이 진자 열반이라고 하셨던 스님께서 이제 생명의 문을 자유자재로 건너하셨으니 걱정과 슬픔으로 헤메이는 이 땅에 만공의 달이 되어 두루 세상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을 거두어 주는 영원한 스승으로 한자리에 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을 한마음으로 모아 주신 이 원력의 도량에서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잘 받들어 불공정도 이루는 날에 스님께서도 발원하신 전법향상과 포교 원력을 잊지 마시고 하루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 오소서.

불기 2556년 5월 26일
명우 전국비구니회장



큰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삼세의 어두운 마음들을 광명으로 화하게 하는 법바퀴이십니다.

가없는 큰스님의 법향이 일체 생명들에게 가고 오는 사이 없이 전달될 수 있게 쉽없는 정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합장 구배

